

보도에 의해서 야기된 국제화는 다시 보도에 엄청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바른 보도는 바른 국제화에 기여하게 되고 바른 국제화는 바른 세계화와 개방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화의 대두와 더불어 마치 개인이 사회 속에서 홀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국가 역시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곧 이웃나라의 문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보도는 국제화를 야기하는데 기여했고, 국제화는 다시 보도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술한 바와 같이, 바른 보도는 바른 국제화에 기여하게 되고,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제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한 현대사회의 세 번째 변화는 첨단과학기술시대의 도래가 된다.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는 그 특성상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기회는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지만 위기는 첨단과학기술사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도의 중요성 문제가 제기된다. 바른 보도는 첨단과학기술사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가 하면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그 사회의 특성상 그 사회를 신속하고 엄청나게 파멸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과학, 우주과학, 에너지기술, 그리고 첨단통신기술 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들이라 판단된다.

매스컴환경의 대두는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마지막 사회변화가 된다. 매스컴환경은 매스미디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힘입어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된 지 오래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스컴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증대는 자연스럽게 보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바른 보도는 바른 매스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매스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3. 오보발생의 배경

1) 오보의 개념과 오보사례

보도에는 바른 보도와 바르지 못한 보도가 존재한다. 바른 보도를 정보(正報)라 한다면 바르지 못한 보도는 오보(誤報)가 된다. 오보를 그릇된 보도(incorrect report)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오보는 다시 부정확한 보도, 불공정한 보도, 그리고 주관적 보도로 유형화될 수

있다. 부정확한 보도는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의미하고, 불공정한 보도는 보도의 균형감각이 상실된 치우친 보도를 의미하고, 주관적 보도는 보도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보도를 의미한다.

부정확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함안 바둑이 보도사례, 평화의 댐 보도사례, 백선장 보도사례, 김일성 사망 보도사례 등이 있고, 불공정한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삼청교육대 보도사례, 권인숙 양 성고문 보도사례, 광주항쟁 보도사례 등이 있고, 주관적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전두환 우상화 보도사례와 군 우상화 보도사례 등이 있다.

함안 바둑이 보도사례는 물에 빠진 주인을 함안 바둑이가 구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보도는 곧 부정확한 보도로 밝혀졌고, 전국의 신문·방송들은 일제히 사과공고를 게재하는 등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사태의 발단은 술만 먹으면 전화통을 붙들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한 주정뱅이가 이장(里長)집 전화기를 붙들고 모 방송국에 엉터리 제보를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평화의 댐 보도사례는 북한이 수력발전용 금강산댐을 건설하게 되면 그것이 남한에 대한 수공(水攻) 위협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문을 열면 서울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보도는 결국 제5공화국 정부가 시국 전환을 위해서 조작한 내용을 전국의 언론들이 과장해서 보도한 사례로서 판명되었다. 국민들은 이 보도로 인해서 대응댐을 건설하기 위해 총 773억원을 모금하는 불안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 사건은 전국의 언론들이 정부의 조작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된 치욕적인 역사로서 기록되고 있다.

백선장 보도사례는 총 292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우리 나라 최대의 해난사고의 선장이 살아서 중국으로 잠적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사례는 명예롭게 순직한 선장을 도망갔다고 잘못 보도한 대표적인 오보로서 기록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은 확인절차도 없이 순직한 선장이 파렴치하게 도망쳤다고 보도할 만큼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김일성 사망 보도사례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9일 갑자기 사망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김일성 주석은 외국의 사절을 평양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슨 정보와 상황이 살아있는 김일성 주석을 갑자기 사망했다고 보도하게 만들었는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백선장 보도는 죽은 사람을 살아서 도망갔다고 보도한 사례라면, 김일성 보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보도한 대표적인 오보사례가 된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우리 나라 언론의 슬픈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들이라 판단된다.

삼청교육대 보도사례는 1980년 4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라는 명분 아래 3만8천여 명의 국민들을 삼청대에서 교육시킨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삼청교육이 사회정화와 사회악 일소라는 긍정적인 면만을 과장해서 부각한 나머지 삼청교육의 위법성과 인권유린 상태에 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사건의 양면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한 불공정 보도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1994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므로써 국가가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언론은 사회환경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자로서 그러한 일방적 보도 때문에 전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권인숙 양 성고문 보도사례는 1986년 6월 제5공화국 정부가 시국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여대생 권인숙 양을 위장취업 혐의로 수사한 후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권양은 수사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검찰, 사법부는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양의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언론은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에서 약한 국민의 이야기는 외면하고 강한 권력기관의 앵무새 노릇만을 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망각했다고 판단된다.

1988년 7월 국가는 권양의 주장을 인정하고 수사관인 문귀동을 처벌함으로써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처하는 언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시종 침묵해도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항쟁 보도사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언론은 정부가 광주사태를 폭동이 아닌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짓기까지 광주사태의 폭동적 성격만을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언론이란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만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은 정부가 ‘시(是)’라 할 때 ‘비(非)’라 할 수 있어서 시비가 변증법적으로 ‘합(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언론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이다.

2) 오보발생의 배경

오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기자차원의 배경, 조직차원의 배경, 사회차원의 배경 그리고 국가차원의 배경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들은 오보를 발생시키는 데 단독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으로 얹혀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배경은 직접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다른 배경은 간접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떤 배경은 1차적으로 기능하는 데 반하여 다른 배경은 1차 배경이 기능한 후 2차 혹은 3차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떤 배경은 미시적인 배경인 데 반하여 다른 배경은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 기자차원의 배경

오보를 유발하는 기자차원의 배경은 크게 보도기술적 배경, 보도지식적 배경, 보도윤리적 배경, 그리고 보도관행적 배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도기술적 배경이란 취재·보도에 필요한 기술적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보도지식적 배경이란 취재대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검비와 활용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보도윤리적 배경이

란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자세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보도관행적 배경이란 오보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재·보도관행 차원의 배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배경은 결국 기사를 취재·보도하는 데 필요한 기자의 전문성 차원의 배경으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오보를 유발하는 배경이란 기술적 전문성, 지식적 전문성, 윤리적 전문성, 그리고 관행적 전문성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기자가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면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든지 혹은 부족하면 바르지 못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이란 취재차원의 기술, 보도차원의 기술, 그리고 편집차원의 기술을 포괄한다. 기자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재대상을 우선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내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화해서 편집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기자에게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그리고 민첩한 손발이 요구된다. 기사 취재는 손발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하는 게 좋고,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하는 게 좋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확인노력, 명쾌한 사고능력, 신뢰성과 윤리성, 그리고 복잡한 사안을 대중의 언어로 읽기 쉽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는 의사소통능력 등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 기자가 피해야 할 취재·보도상의 5대 암초는 서두는 행위, 게으른 행위, 부주의한 행위, 유행추구적 행위, 그리고 효과지향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오보들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기자는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항상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실천해야 한다.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하고, 형상과 본질을 구별해야 하고,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구별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써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써 말하기 때문이다.

바른 보도는 보도기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취재·보도기자는 우선 바른 보도를 위해서 취재와 기사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데스크는 바르지 못한 보도내용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교정에서부터 제목작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사편집에서부터 지면구성에 이르기까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나. 조직차원의 배경

하나의 바른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는 수많은 유혹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을 철저하게 규율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혹과 영향력은 조직 내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조직 외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언론학에서는 기자가 기사를 생산하는 데 작용하는 영향력을 통제로 개념화한

다. 따라서 조직 내적인 유혹과 영향력은 내적 통제가 되고, 조직 외적인 유혹과 영향력은 외적 통제가 된다.

기자에게 가해지는 내적 통제는 크게 자율통제(self-control)와 조직통제(organizational control)로 유형화된다. 여기서 논의하는 조직차원의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직통제는 ① 사주에 의한 통제, ② 사규에 의한 통제, 그리고 ③ 수문장 과정에 의한 통제로 유형화된다. 이 중에서 기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조직통제는 아무래도 사주에 의한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사주는 언론사의 소유주이며 최고 경영자로서 기자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자는 불복에 대한 제재,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 승진욕구, 내부집단(inner circle)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 등으로 사주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언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기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주에 의한 통제는 사주의 철학, 사주의 취향, 사주의 언론관, 사주의 경영관, 사주의 정치적 이념과 소속 등에 의한 통제에서부터 사주의 무지, 사주의 무책임, 사주의 비윤리성, 사주의 비전문성 등에 의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주에 의한 통제 가운데 기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가해지는 통제는 사주의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이해와 관련해서 행사되는 통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사주의 경제적인 이해는 기업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의미하고, 사주의 정치적 이해는 정치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밀어주기나 깎아내리기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 와서 선진국에서는 사주에 의한 통제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추세에 주된 원인으로서 기자의 전문성 향상, 사주통제에 대한 법적 제재의 증가, 언론조직의 방대한 규모와 복잡성, 수문장 과정(gatekeeping process)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증가 등이 제시된다.

사규에 의한 통제는 회사의 사시(社是)에서부터 내규에 이르는 각종 규칙과 규정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조직은 조직특성상 각종 규범질서(normative order), 권위의 위계질서(authority ranks), 그리고 구성원 자격제도(membership coordinating system) 등을 필수로 한다.

이러한 사규 가운데 기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규정은 승진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 근무지 이동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 그리고 구성원 품위와 관련된 규칙과 규정 등이 존재한다.

수문장 과정에 의한 통제는 보도기사가 유통되는 관문을 지키는 책임자들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보도기사가 유통되는 첫 번째 관문은 해당 부서의 부장, 편집부서의 부장, 그리고 편집국장, 담당이사, 사장 등의 관문이고, 그 다음의 관문은 광고책임자, 판매책임자, 공무책임자, 인쇄책임자, 배달책임자 등이 존재한다. 하나의 보도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기까지는 이러한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고, 또한 관문의 책임자는 그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다. 사회차원의 배경

엄격하게 말하면, 오보를 양산하는 문제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문제기자가 아니라 문제조직이다. 조직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문제기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문제조직이란 문제사회의 반영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보도기자는 하나의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통제를 감당해야 한다.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통제로서는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문화적 통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제상황들이 기자로 하여금 오보를 생산케 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기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통제로서는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법에 의한 규범적 통제, 정치적 이해집단에 의한 통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의한 통제들을 포괄하지만 주로 행정부에 의한 행정적 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법에 의한 통제는 언론법과 언론관계법, 그리고 언론관련조항들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고, 정치적 이해집단에 의한 통제는 경실련, 공선협,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고, 정치적 상황에 의한 통제는 전쟁이나 IMF사태와 같은 국가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통제로서는 광고주에 의한 통제, 독점과 집중상황에 의한 통제, 카르텔에 의한 통제, 그리고 경제적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통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적 통제와 결부되어서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

광고주에 의한 통제는 광고물 자체를 통한 통제, 홍보기사의 요구를 통한 통제, 경쟁회사의 제품금지를 통한 통제, 그리고 논쟁적 문제회피를 통한 통제 등을 포괄한다. 독점과 집중에 의한 통제는 네트워크와 체인에 의한 통제, 통합소유형태에 의한 통제, 다각소유 형태에 의한 통제, 공동계약에 의한 경영형태에 의한 통제가 있다.

카르텔에 의한 통제는 현재로서는 신문산업에 국한되는 통제유형으로서 신문가격이나 신문제작과 운영에 관해 발행인들이 담합함으로써 행사되는 통제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경실련,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와 같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 단체들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고, 문화적 통제는 문화전통이나 규범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사회적 통제는 문화적 통제와 결부되어서 행사되는 특성을 가진다.

라. 국가차원의 배경

국가차원의 배경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이익의 신장을 위해서 국가가 언론에게 행사하는 각종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의 배경이란 언론에 가해지는 국가적 통제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언론의 공공책임으로서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에 속하

지 않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관련 실정법으로는 국가보안법, 군형법,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등이 존재한다.

기자는 보도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의 책임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언론의 공공책임은 일반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보다는 엄격하고 가혹하기 때문에 기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과장, 축소, 왜곡, 편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이익의 신장도 기자에게 비슷하게 작용한다. 기자는 보도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의 책임과 국가이익의 보호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 경우,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국가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왜곡하게 된다.

일본언론은 JAL기 추락사건의 경우 국가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진실을 왜곡했으며, 미국언론은 U-2기 추락사건과 쿠바침공사건에서 국가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침묵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마. 보도관행차원의 배경

오보를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보도의 부정적 관행으로서는 무리저널리즘(herd journalism), 패거리저널리즘(pack journalism), 하이에나저널리즘(hyena journalism), 카멜레온저널리즘(chameleon journalism), 낙하산저널리즘(parachute journalism), 촌지저널리즘(cheque journalism),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자민족우선주의적 저널리즘(ethnocentric journalism), 신화창조적 저널리즘(myth-making journalism), 아프카니스탄주의적 저널리즘(afghanistanism journalism), 현지정략편승저널리즘, 내정간섭적 저널리즘, 그리고 정책도구적 저널리즘 등이 존재한다.

무리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기자들이 무리지어서 몰려다님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상실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패거리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패거리를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하이에나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약한 자와 “썩은 고기”만을 쫓아서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하고, 카멜레온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환경적응을 위해서 쉽게 변색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낙하산저널리즘이란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수처럼 그 사건만 취재하고 현장을 곧 떠나버리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촌지저널리즘은 금전이나 향응과 같은 대가를 받고 취재·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황색저널리즘이란 자본주의 언론의 특성으로서 사건의 흥미성, 쾌락성, 선정성, 자극성만을 추구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자민족우선주의적 저널리즘이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문화만을 과장되게 좋고 우수하다고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

다.

신화창조적 저널리즘이란 전쟁보도나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형스포츠행사의 보도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신화를 만들어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하고, 아프카니스탄주의적 저널리즘이란 국내 주요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외면하면서 외국의 주요 사건을 크게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현지정략편승 저널리즘이란 사건이 발생한 현지 정부의 정략에 언론이 알게 모르게 편승함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내정간섭적 저널리즘이란 국가이익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정책도구적 저널리즘이란 언론이 국가의 정책도구처럼 알게 모르게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국가이익과 정부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권이이익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항상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오보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나라 기자의 의식차원의 관행으로서는 풍조주의적 경향, 저항주의적 경향, 권위주의적 경향, 징검다리적 경향 등이 존재한다. 풍조주의(風潮主義)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벼운 태도, 언론이나 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태도,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적당주의적 태도 등을 총칭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저항주의란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마치 투사처럼 반대하고, 폭로하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권위주의란 권력적 권위를 내세워서 취재·보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언론은 결코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봉사기관이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이 위임된 신탁기관으로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징검다리적 경향이란 기자들이 언론을 천직이나 평생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론을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계를 꿈꾸는 정치부 기자, 관계를 꿈꾸는 정치부 기자, 기업진출을 꿈꾸는 경제부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관행 속에 오보발생의 가능성이 숨어있게 된다.

4. 개선방향과 대책

오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조직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관행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보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인 기자 차원과 언론사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